

합동전화

로카디파라, 2016 년 12 월 17 일  
성탄 특집: 전세계에서 보내 온 축하 인사

(목차)

1. 하나와 둘이 - 불꽃 (발터 코스트너 작)
2. 시작 인사
3. 불가리아 - 공동체 축하인사
4. 전세계에서 보내 온 축하 인사 (1)
5. 빅토리아 살리초니 (알레타)
6. 카메룬 - 폰툼 소도시로 부터의 인사
7. 전세계에서 보내 온 축하 인사 (2)
8.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인사
9. 끼아라 루빅: 성탄입니다- 2005 년 12 월 합동전화 영상
10. 끝 인사

1. 하나와 둘이

(음악)

하나: 내 불꽃을 재한테 줄까?

재에게 줘버리면 나는 어둠 속에 남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재한테 줄까? 말까?

(음악)

하나: 아, 정말 아름답다!

(음악과 박수)

2. 시작 인사

리노 베르나르디니: 하나와 둘이 고마워요. 전 세계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특별한 합동전화의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축제의 순간입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큰 축제만큼 큰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엠마우스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박수)

축제 중의 축제이니, 바로 오늘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80 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박수)

마리아 데레사(마리): 축제에 대해 얘기 중인데, 2 년 전에 바로 여기 총본부 강당에서 우리의 금혼식을 축하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자녀와 다섯 명의 손자가 있는데, 몇 명은 이 강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몇 년간을 미국에서 지냈는데, 우리 집은 포콜라레의 연속인 듯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어른, 아이 별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운동 초창기였지요. 매우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리노: 우리는 끼아라가 전하는 전세계 소식을 듣기 위해 녹음기 앞에 모이곤 했죠. 한 문장 한 문장 통역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했지요.

### 3. 불가리아 – 공동체 축하인사

마리: 우리는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늘 그랬듯이 세계여행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불가리아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요..... 우리가 보게 될 화면은 그 곳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과 다른 많은 것들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불가리아어- 이태리어 자막<sup>1</sup>)

(풍경)

젊은 여자: 불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악)

여: 애들아 소피아에 가자.

(노래)

Mitko: 너 알아 오늘.....?

Stavri: 응! 알아!

Mitko: 지하철로 가니?

Stavri: 너는 자전거로 가니?

Mitko: 그래, 그럼 거기서 보자.

Stavri: 응 나중에 봐.

(노래)

Julia: 차오,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Mitko: 차오,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Julia: 월 가져 갈지 보자. 드러머 오니?

Majda: 아니, 안 와.

Ilidiko: 기타 가져갈게요.

Lucia: 그래요! 그런데 강당의 프로젝트가 고장 난 것 같아요.

Ilidiko: 그러면 프로젝트도 가져갈게요.

<sup>1</sup> Servizio di Donato Chiampi.

Majda: 여기에 놓을게.

Julia: 그래, 나갈 때 가져가기 좋게 여기에 놓자 ……

(노래)

Lucia: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는 늘 축제이지요!

여러분은 다양한 교통 수단과 비, 눈, 태양, 안개 등 여러 기상 다른 조건에서 오셨습니다.

이 것은 우리를 다시 일치시켜주는 ‘큰 “합동전화” 가족’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합동전화”가 시작됩니다.

(박수 – 모두 안녕하세요! – 짹짹해지고 모두가 동시에 얘기)

무슨 일이에요?

코시오는 어디 있어요?

혹시 라이터 가진 사람 있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어떡하지요?

남자 3 켄: 아니에요!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밝혀주는 한 별이 태어났어요.

“합동전화” 대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불가리아에서 인사 드립니다!

함께: 축하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노래 와 박수)

리노: 불가리아지역에 감사드립니다!

#### 4. 전 세계에서 보내 온 축하 인사 (1)

리노: 우리가 깜빡 했네요! 여기는 마리아고 저는 리노입니다. 지난 합동전화 끝에 다음에는 성탄 축하인사를 서로 나누자고 했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축하 인사가 마치 눈사태처럼 도착했고, 지금도 도착 중인데, 이제 서서히 합동전화 페이스 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합동전화는 좀 특별하고,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데,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범 국가적인 성탄 축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치 한 가정에서 하듯이 이 “앨범”을 펼쳐봅시다. 단순한 수단들로 만들었지만, 사랑이 가득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이제 라틴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북미, 인도 오스트렐리아로 가 봅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보스턴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인사하겠습니다.

북미에 관련해서는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 드리겠습니다. “Merry Christmas in U.S.A.!” (박수)

(음악 과 여러 언어로 축하한다는 말 자막)

#### 메델린 – 콜롬비아 (스페인어)

여: 오늘 우리는 콜롬비아 메델린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성탄 축하인사를 보냅니다!

남 젊은이: 이 도시에서 우리는, 강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71 명의 브라질 선수들의 사망을 초래한 항공기 사고는, 우리에게 직, 간접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전세계의 사업회를 위해 살고, 바쳐드립니다.

여 젊은이: 고통 안에서 사랑하고자 일치된 이 경험 안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모든 이의 마음 안에 태어나도록 함께 모인 브라질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사가 도달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커다란 성탄 축하를 보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함께 축하인사, 노래 와 음악)

### 리아 마리아폴리 소도시- 아르헨티나(스페인어)

남 젊은이: 아르헨티나 리아 마리아폴리 소도시에서 세상 모든 가정을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평화, 자비, 기쁨 그리고 사랑, 많은 사랑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 젊은이: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될 새해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치의 건설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남 젊은이: 다음 합동전화에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가꾸어 이 마리아폴리 소도시를 생태-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성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2017년 새해 맞으세요?

(박수 와 음악)

### 플라타 해, 탄딜과 발카세- 아르헨티나(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자막)

함께: 산에서, 바다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박수, 음악)

### 마나우스 - 브라질(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

남: 아마존에서 특별한 인사드립니다.

여자 아이: Feliz Natal!

함께: Feliz Natal! (음악)

### 엘 살바도르(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자막)

여자 아이: ... ..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시켜주기 위해 천사들이 계속 노래해요. “땅에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하느님께 폭력을 꺾어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고 사랑을 심어주시어, 하루빨리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해 주실 것을 청해요. 포콜라레운동이 여러분에게 기쁜 성탄과 새해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음악)

### 루미노사 마리아폴리 소도시 - 미국(영어)

스피커: 루미노사 마리아폴리 소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곳에는 거의 30년간, 매 성탄 때면 국제적인 구유를 보러 주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60 개 국의 200 개 이상의 구유가 모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1,500 명 이상의 방문객이 매우 기다리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예수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을 기념하는 전 세계의 포콜라레 공동체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루미노사 마리아폴리 소도시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Buon Natale! (음악)

### 토론토 - 캐나다

(노래 와 음악)

### 몬트리올 - 캐나다

함께: Buon Natale! (음악)

### 시드니 -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이태리어 자막)

함께: Buon Natale da qua sotto! (음악)

### 방갈로레 - 인도 (영어 이태리어 자막)

안넛 코스타: 차요. 저는 안넛 코스타이고 4 젠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드려요. 우리가 모은 돈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주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탄의 중심에 들어가세요. (음악)

### 방갈로레 - 인도 (영어 sottotitolato 영어)

브렛 3 젠 (남): 하이, 내 이름은 브렛이고 방갈로레의 3 젠인데, 우리는 사티아 세밤 학교의 성탄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 아이들은 부유층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물건들도 모아서 그 아이들을 도와 주어야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함께: (자신들의 언어로 축하 인사)

(음악)

### 뭄바이 -인도 (영어 이태리어 자막)

(음악)

남자 아이: 우리 4 젠들은 아기 예수님 상을 준비했는데, 모든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생일이니 모두에게 성탄을 축하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자막: 실현

여자 아이: 우리는 이걸로……

여: 석고로?

여자 아이: 네.

여: 오, 좋아요, 그리고?

여자 아이: 잘 섞어서 아기 예수님 상 틀에 천천히 부은 후에 굳도록 놓아두었어요. 다음 날 틀에서 꺼집어 냈는데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음악)

남자 아이: 모은 돈으로는 평화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자막: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평화와 영광을 축원하며 -사랑으로 뭉바이에서(박수)

마리: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 5. 빅토리아 살리초니 (알레타)

마리: 11 월 22 일에 끼아라의 트렌토 첫 친구들 중 하나 였던 알레타 살리초니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알레타는 길고 결실 풍부했던 삶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알레타가 긴 전쟁 기간 중에 레바논에서 살았던 시기에 대해 얘기하는 1 분짜리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알레타: [···]전쟁 중이었고, 우리 작은 공동체는 모두 하나, 모두가 하나였어요. [···] 전쟁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었었어요. 전쟁은 정말 초창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설교였어요.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게 하고, 오직 하느님 만이 남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늘 죽음의 위험 아래 놓여있었어요. 폭탄들이 경보 예고도 없이 날아왔는데 첫 번째로 떨어지는 폭탄이 경보였고 그러면 모두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족, 그 공동체, 온통 이상이었던 때문이에요. [···] 우리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늘 연결돼있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잘 양성해 주었어요.<sup>2</sup>

(박수)

마리: 피에르, 레바논 사람이지요?

피에르: 네.

마리: 젊었을 때 알레타를 알게 됐지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피에르: 알레타가 레바논에 왔을 때, 우리는 몇몇 젊은이들로 포콜라레의 일치의 영성을 살기 위해 만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는 여기 있는 요시아네와, 아직도 여기 있는 파스칼과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 혼자 자동차로 알레타의 포콜라레에 가서 알레타를 수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젊은이들을 만나던 2 켄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알레타는 우리에게 와서 끼아라의 이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했는지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알레타는 자신의 현존 만으로도 하느님의 현존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녀가 내 앞에 하느님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알레타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그들은 사람들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복음 말씀을 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전쟁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포콜라레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꼈고, 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이에, 켄들, 젊은이들 혹은 포콜라레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알레타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우리는 단 한 가족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sup>2</sup> Da una intervista di Margaret Coen – Charisma Productions del 25 marzo 2005.

마지막으로 10 월에 여기서 엘레따를 볼 수 있었는데, 즉시 나를 알아 보고, “내 가까이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다가가면서 포옹해 주려고 했는데, 알레타가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리: 감사합니다. 알레타는 레바논에서 여러 해 동안 길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박수)

## 6. 카메룬 – 폰툼 소도시로 부터의 인사

리노: 카메룬 폰툼의 방과 족은 1 년 전부터 축제 중입니다. 방과족과 끼아라 그리고 포콜라레 운동의 만남 50 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요사이 4 일간의 기념 축제 기간을 마무리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난 50 년의 삶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폰툼의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H.R.H. Joseph Njendem, 폰쥬메토 추장(영어): 안녕하세요? 엠마우스 마리아 보체 어머니! 우리의 심심한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박수) 최근 50 년간 엠마우스와 포콜라레 운동 전체가 우리에게 해 준 모든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드류 Nkea 주교- Mamfe 교구: 차오 엠마우스, 이 곳 폰툼에서는 매우 강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 덕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으며, 끼아라가 우리 폰툼의 방과 족을 위해 가져온 이 이상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과 새해를 축원합니다. “Bun bun Chrismi e bun bun guadesso” Emmaus! (박수)

헤수스: 차오 엠마우스, 차오! 아프리카의 심장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아름다운 곳의 주요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는 ‘이상의 50 주년’의 특별한 은총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새로운 아프리카를 느낍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박수)

모두: (영어): MERRY CHRISTMAS! (박수)

마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7. 전세계에서 보내 온 축하 인사 (2)

마리: 축하인사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유럽, 중도, 아시아 ……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카디파파의 끼아라 집의 인사를 들겠습니다.

(음악 과 여러 언어의 축하인사)

### 코트디부아르 (지역 언어, 이태리어 자막)

여자 아이 와 다른 아이들: 빨리 보러 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3 번 반복)

(구유 극과 음악과 노래)

일어나세요! 보러 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목동들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보러 가세요.

삼 왕들 우리가운데 예수님을 보러 가세요!  
빨리 보러 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토고 (북부) (여러 언어, 이태리어 자막)

(노래)

남(볼어): 우리는 토고 북쪽, 정확히 말해 카라에 있는데, 오늘 카라에는 소코데, 카라 그리고 다파옹시의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일치 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탄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모바어): 우리 운동의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남(볼어): 이번에는 카비웨어 입니다.

남 2 (카비웨어 인사): 축하드립니다 ...

남: 코토콜리어 인사도 잊지 말아야지요.

여 2 (코토콜리어 인사): 축하드립니다

(박수 e 노래)

토고 (남부) (볼어 이태리어 자막)

여: 저는 실비이고, 우리는 토고의 로메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 2: 에웨어로 축하드립니다!

남 2 (카비에어): Buon Natale!

남 3 (모바퀘어): 드디어 모바퀘어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와 음악)

에스타바에-르-락- 스위스

이태리어 자막: 노인 요양원 방문 (음악)

클루지나포카- 루마니아 -(루마니아어 이태리어 자막)

함께: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

아그리젠토 - 이태리

함께: 아그리젠토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음악)

쿠네오 - 이태리

함께: 쿠네오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음악)

람페두사 - 이태리

함께: 람페두사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음악)

로마 한 구역에서- 이태리

모두 함께: 전 세계 모든 분에게 인사드립니다! Ciao! (박수 e 음악)



아시시 – 이태리

사진기자: 하나, 둘, 셋 시작!

함께: Buon Natale! (음악)

몰타(영어 와 몰타어)

여 (영어): 이 성탄을 가족정신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피난민들을 돕고, 곧 출감할 한 분을 위해 일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몰타어): 축 성탄! (음악)

레바논(아랍어)

함께: 축 성탄!

마리에크론 소도시 – 네덜란드 (네덜란드어 이태리어 자막)

여 젊은이: 이 구유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학교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성탄 축하드립니다! (음악)

민스크-벨라루스 (노래)

남자 아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 태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많은 이의 마음도 달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Siviglia – Spagna

(음악)

함께: 세비야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음악)

비엔나 – 오스트리아

영어 와 이태리어 자막: 시리아 난민을 위한 자선 공연  
(노래)

헝가리

영어 와 이태리어 자막: 헝가리에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노래)

홍콩(광둥어)

(음악)

여: 차오! 우리는 홍콩 사람입니다.

남: 차오!

여: 이달 18 일에 성 에지디오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 성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민자들과 저소득층 가족들 그리고 홍콩의 소수 민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일부는 회교도입니다. 그들에게 연극을 통해 성탄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놀이를 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 사진)

남: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매일이 성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현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축하 인사)

### 평화 마리아폴리 소도시 - 필리핀

감독: 하나, 둘, 셋!

함께: Merry Christmas to all!

(음악)

### 부중부라 - 부룬디(지역 언어, 이태리어 자막)

여자 아이: 성탄 때는 많은 경험을 하지요. 어느 날 저의 엄마가 저에게 잠자리 준비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셨는데, 머리가 좀 아파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와드렸는데, 엄마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노래)

남자 아이: 우리 4 젠들은 전 세계의 5 젠들과 4 젠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내요.

우리는 5 젠들을 위해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데, 5 젠들도 기뻐하기 바라기 때문이에요.

### 로카디파파

(음악 과 정경)

포콜라레 엘리, 지스와 함께: 모두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박수)

## 8.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인사

리노: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선물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 이 “선물 상자를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엠마우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회복 되셔서 정말 기쁩니다!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엠마우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 성탄 축하에, 이 성탄 축제에, 내 생각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 세계, 일치된 세계, 끼아라의 가족이 주인공인 이 합동 전화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에서 차별 없이 아름다운 성탄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탄을 기해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3 개월간 총본부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중요한 수술 때문에 총본부 밖에서 어느 정도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이 3 개월이 내게 어땠는지 얘기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알고 싶나요? 바다에 아니 사랑의,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사랑의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내게 느끼게 해준 끼아라의 가정의 ‘사랑의 대서양’에 꼭 잠긴 3 개월 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상호성을 체험한 기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나의 삶, 나의 건강, 의사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면서

나의 몸, 나의 생각, 있을 수 있었던 나의 걱정, 나의 작은 신체적 불편함 등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두를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보다시피 완전한 건강을 주셨는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감사해야 할 여러분 모두의 기도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상호성을 느꼈는데, 모든 곳에서 참된 형제, 자매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처럼 의미 있는 성탄 시기에 다시 돌아오면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회임 기간, 무언가가 태어나는 시기, 누군가가 태어나는 시기였는데, 가장 참된, 가장 깊은 의미로, 우리 모두의 서로간의 사랑 위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태어나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러 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이, 지혜 그리고 은총이 자라났으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또한 계속해서 자라나실 것이니, 이 예수님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탄생 축제입니다. 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성탄 축하 드립니다! 이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박수)

**리노:** 지금 끝나가는 이 “기간”이 엠마우스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의 새로운 힘, 엠마우스에게 일어난 “회생”을 우리도 함께 느낍니다.

**엠마우스:** 네, 새로워진 힘을 느낍니다. 당연히 무엇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지만, 이 가정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니 우리는 참으로 이 실제적인 가정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축하인사, 메시지들이 도달 했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탄축제를 지내는 사람들뿐 아니라, 축제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내게 가까이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일반적인 기도”를 약속하며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 운동들, 리쇼코세카이 회장, 다른 교파들, 세계 기독교 교회일치 평의회, 목사, 일반인들, 여러 종교 친구들도 연락을 해 왔습니다. 나는 정말 온전히 둘러싸였었습니다…… 인도의 비누 아람, 모든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스탄불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먼저 알게 된, 엠마우스의 건강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밀감을 얘기하자면 그랬습니다.

대통령 마타렐라도 내가 아직 병원에 있을 때,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완쾌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런 것은 미처 기대도 못했기 때문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는 오래 전부터 운동을 알고 있고, 오래 전 이지노 죠르다니 시절에 알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격려의 조류, 눈사태가 단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련을 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눌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며, 나도 재산의 나눔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산의 나눔이고, 이 격려의 사태는 막 태어난 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므로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도달하는 전 세계의 우리 운동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중요성으로 마지막은 아는데, 여러 번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은 내가 수술 한 다는 것을 알고 내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 오신 것이었고, 나중에 건강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보내셨는데, 이 편지는 내가 이미 낫고 나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교황님이 쓰신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보체 여사에게 심심한 격려인사와, 운동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신을 위한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라는 격려 말씀입니다. (웃음)

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 수술을 해 준 의사를 그저께 만났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며, “조심해서 서서히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매우 가치 있는 당신의 활동을 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재기하라고 하니, 이 모든 격려에 순명 해야지요.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모든 포콜라레 회원들에게 있어 마리아 보체 여사의 부재를, 동정 마리아의 모성애적 보호를 간구하며 동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교황님의 격려와 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황님의 생신이기도 하니, 여러분 모두가 전 운동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기 원할 것입니다. “성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황님 사랑합니다!”. (박수)

## 9. 끼아라 루빅: 성탄입니다.

마리: 이제, 이 합동전화를 마무리 하면서 끼아라가 우리에게 축하인사를 해 주기를 바라며, 2005년 성탄 때 합동전화를 위해 녹화했던 메시지를 들겠습니다. 끼아라의 마지막 인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엠마우스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볼 것입니다.

끼아라: 성탄입니다.

가게 진열장들은 황금빛의 장식구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 고급스런 선물들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밤 거리들은 수 많은 별들과 유성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색색의 작은 전구들로 무거운 가지를 드리운 가로수들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공기 중엔 기다림이 있으며, 모두가 이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성탄은 단지 2005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을 기억하는 전통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살아있습니다!

단지 구유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해마다 되살아나는 기쁨과 우정과 선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세상은 심각한 문제들로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굶주림에 이르는 가난과 파키스탄에 일어난 지진, 수 많은 전쟁들과 테러리즘, 종족 간의 미움, 또한 그룹과 사람들 사이의 증오심이 있습니다.

(음악)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다시 되돌아 오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거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신 작은 아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펼쳐진, 사랑으로 하나된 형제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사랑이 모두를 감싸며,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 혼자이고 가난하고 어리고 병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랑과 물질을 나누는 이 행위가 함께 성탄을 보내고 계속 지속되는 참된 형제들로 이루어진 한 가정을 빛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사랑의 힘 앞에서 어떤 이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성탄의 빛으로 호의를 베풀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불러일으키도록 합시다. 이것들은 악을 위한 구제책이 될 것이며, 작은 일들 같지만 방대한 차원에서 적용된다면 세상에 만연한 심각한 악을 위한 빛과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sup>3</sup> (음악 과 박수)

## 10. 끝 인사

엠마우스: 이 끼아라의 성탄인사에 덧붙여 우리도 끼아라와 함께 인사합니다. “모두에게 성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말을 듣고 있는 끼아라께 예수님은 돌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사랑으로, 끼아라가 우리에게 축원했던 그 사랑으로 이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노: 그러면 끼아라가 집에 가지고 있던 이 구유 곁에서 인사를 나누기로 합시다.

그럼 전세계 모든 분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2월 11일 오후 8시 다음 합동전화에서 만납시다.

차오!

(박수와 노래)

---

<sup>3</sup> Dal pensiero per il Collegamento CH di dicembre 2005.